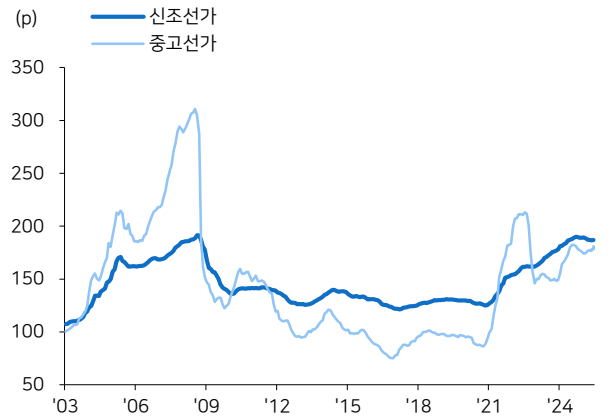
meritz 항해일지

2025. 6. 30 (월)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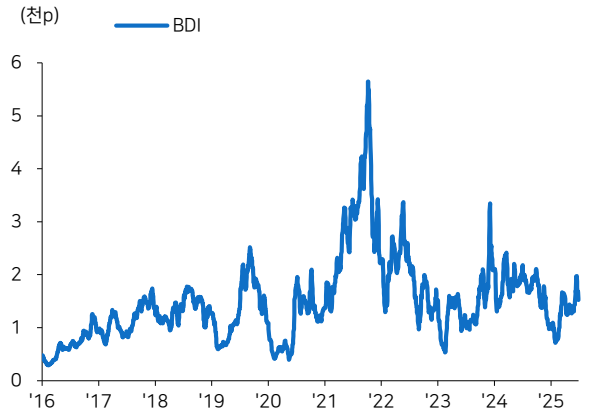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7.1(+0.2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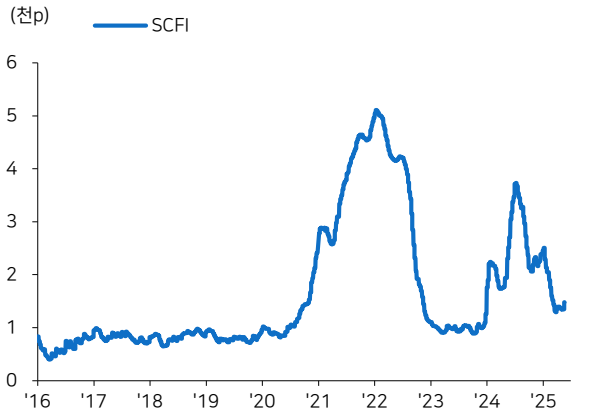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472.0달러(-2.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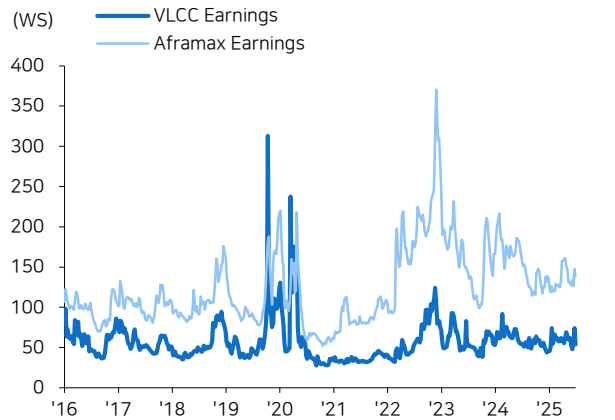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1,521.0p(-32.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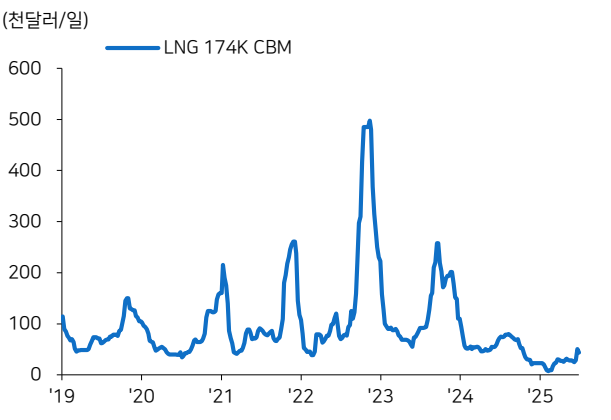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861.5p(-8.1p WoW)



VLCC Spot Rate 53.8WS(-20.3p WoW)



LNG Spot 운임 43.5천달러(-7.0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Indonesian energy giant powers ahead with $8bn fleet roll-out and big gas plans under new CEO

Pertamina International Shipping이 향후 5-10년간 7,080억 달러를 투자해 선대를 확장하고, 청정 연료 중심의 탈탄소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Jakarta에서 열린 행사에서 밝힘. LNG 운반선 3척을 도입 중이며, HD Hyundai Mipo에 발주한 MR급 유조선 15척은 척당 4,775만 달러 규모로 2026년까지 인도 예정임. 싱가포르, 두바이, 런던 등에 지사를 세워 국제 시장 입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에너지 터미널 개발 및 동부 항만 인프라 구축을 병행 중이라고 전해짐. (TradeWinds)(https://buly.kr/1uW05A)

Evangelos Marinakis boosts LNG orderbook with $1bn deal at HD Hyundai Samho

Evangelos Marinakis가 이끄는 Capital Group이 HD현대삼호에 LNG 운반선 4척을 추가 발주했으며, 계약 금액은 총 1조3,960억 원으로 보도됨. 해당 선박들은 2028년 하반기까지 인도 예정이며, 이번 계약으로 Capital Group은 총 14척, 35억 달러 이상의 LNG선을 보유하게 됐다고 전해짐. HD한국조선해양은 이 외에도 최근 Evalend Shipping으로부터 Suezmax급 탱커 2척을 추가 수주했으며, 올해 총 76척, 약 105억 달러 규모의 수주를 기록했다고 알려짐. (TradeWinds)(https://buly.kr/5UI068k)

日 조선사 1·2위, '하나의 회사'로 합친다...韓·中에 맞서 생존 모색

이마바리 조선이 재팬 마린 유나이티드(JMU)의 지분을 기존 30%에서 60%로 확대해 자회사 편입을 발표했다고 보도됨. 이마바리는 철강 대기업 JFE Holdings와 중공업 기업 IHI가 보유한 JMU 지분 일부를 인수하며 경영권을 확보했으며, 이는 2021년 합작법인 '재팬 야드' 설립 이후 지속된 협력의 연장선으로 알려짐. 이번 인수는 일본 조선업이 한국의 친환경 기술력과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 점유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경쟁력 회복을 노린 대응책이라고 전해짐. (글로벌이코노믹스)(https://buly.kr/3YDf0uP)

Green light for $2.2 billion Norway offshore project

Equinor과 공동 투자자들이 노르웨이 북해 Fram Sør 클러스터 개발에 22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보도됨. 본 프로젝트는 PL090 블록 내 최소 4개 유전 · 가스전을 포함하며, 회수 가능한 자원량은 약 1억1,600만배럴(석유 75%, 가스 25%)로 알려짐. Troll C 플랫폼에 전기식 해저 타이백 방식으로 연결되며, 주요 공급사는 OneSubsea, Subsea7, TechnipFMC, Aker Solutions로 전해짐. (Upstream)(https://buly.kr/31TOgDk)

한화오션, 불법파업 470억원 손배소 취하 검토... 배임 논란은

한화오션이 하청노조 간부 5명을 상대로 제기한 470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를 위한 배임 책임 면책 논리를 확보하려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알려짐. 회사는 손해배상액 일부만 인정된 기존 판례와 소송 실익 등을 고려해 소송 유지보다 노사 합의를 통한 재발 방지와 경영 안정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해짐. 한화오션은 파업 재발 방지 약속을 전제로 노사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있으며, 주주 측의 배임 책임 추궁 가능성은 낮은 상황으로 분석됨. (조선비즈)(https://buly.kr/8pgP32w)

선수금만 5조 넘긴 삼성중공업...'3조' 차입금 줄인다

삼성중공업의 선수금(계약부채) 잔액이 2020년 1조7,000억 원 수준에서 2024년 1분기 기준 5조5,101억 원으로 급증했다고 보도됨. 수주잔고 확대에 따라 현금창출력이 개선됐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차입금 순상환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해짐. 전체 차입금 3조 4,000억 원 중 91%가 1년 내 만기되는 단기성으로 구성돼 있으나, 판교사옥 매각 등으로 유동성이 확보되고 있으며 LNG · FLNG선 중심의 고수익 선종 인도를 통해 수익성 개선도 기대된다고 알려짐. (더벨)(https://buly.kr/15P3shg)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